

2024년 7월 14일(주일) 제169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열린프로그램 24년 여름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4년도 여름학기:7.13일(토)-9.15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교회사무국
5. 구글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교회 반주(CCM, 찬송가)	토	10:00-	10주	502	양경실 집사
노래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실용 보컬(Vocal)	토	11:00-	10주	602	이신원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금	13:00-	10주	704	조경숙 권사

- * ■ 신설 강좌
- *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토요 통기타/베이스 기타반, 힐링연기 및 미술은 개인사정으로 여름학기 휴강입니다.
- * 여름학기부터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 * 나의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 * 구글 신청서 QR코드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교회 건강강좌 강사진



이승아 성도



이지영 성도



정영규 성도



범민선 성도



박은진 집사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교회 건강강좌

Health Lectures for Seoul Church and Local Residents

일시

7월 14일 ~ 8월 11일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서울교회 1층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Program

- | | |
|-----------------------|----------------------|
| 7월 14일 이승아 (심장내과) | 심버 건강과 심장질환 |
| 7월 21일 이지영 (정신건강의학과) | 우울하고 불안한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
| 7월 28일 정영규 (소화기내과) | TV에 나오는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
| 8월 04일 범민선 (심장혈관흉부외과) | 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
| 8월 11일 박은진 (치과) | 씹는 힘, 치매를 예방한다. |

주최:서울교회 의료선교부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웁시다

딤후 2:1-13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지나 소신과는 관계없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선생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과연 가르치는 사람으로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케리그마(Kerygma, 말씀),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예배),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 디다케(Didache, 교육),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예수님께서도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적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모두 33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신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인 모두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늘 헌신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1. 실패한 교육의 후유증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행 8:13).

마술사였던 시몬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 문제로 사도 베드로로부터 크게 책망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에 나타나서는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전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사도들 앞에 굴복했던 그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가 된 것은 결국 사마리아 교회의 양육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났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교회는 그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매우 공격적으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종교개혁기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교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기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완수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소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매우 긴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넘치는 소망을 제시하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이름, 곧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에라스도 등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2세대 지도자들이 되어 사도 시대를 능가하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잘 양육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 자량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살전 2:19) 우리도 이와 같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한다면 교회의 내일도 민족의 내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2. 디모데는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은 늘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교회를 돌보는 일도(살전 3:1-6), 분규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교회를 수습하는 일도(고전 16:10-11),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교회를 목회하는 일도(딤후 1:3), 차세대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일도(딤후 4:11) 항상 디모데에게 부탁하였고, 디모데는 훌륭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에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바울의 사역 훈련이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딤후 3:15) 바울은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고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이요”(시 127:3).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면 아이들과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토록 신실한 일꾼 되게 만든 것은 가정에서의 훌륭한 교육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돌봄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첫 전도여행지인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이 도시에 살았던 디모데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행 14장) 그리고 약 5년 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 인근 지역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고 바울의 권유로 전도 여정에 동행하면서 일생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보내어 훈련받도록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해갔습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과 새로운 차원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시작이 매우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3.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1-2절)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좋은 지도자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젖만 먹다가 점차 이유식을 먹고 고기와 과일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뱀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15).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함을 삶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삶, 곧 군사, 경주자, 그리고 농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천 현장에서 자기 땀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가 되고 경주자가 되고 농부가 되도록 우리의 전력을 다하고 기도와 사랑과 눈물을 보태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젖만 먹다가 점차 이유식을 먹고
고기와 과일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전시 상황의 러시아에서 선교 보고드립니다



(위) 예배, 성찬식, 교회학교 특송순서 (아래) 성경공부, 한글학교 행사 및 한글공부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도 내가 옥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욘 19:25-26)

할렐루야!

존경하는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만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확전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3. 15(금)-3. 17(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선거로 현 푸틴 대통령이 82% 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며칠 후인 3월 22일(금) 저녁에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테러범의 무차별 총격으로 민간인이 140여 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후 뉴스에서는 IS(이슬람국가) 아프가니스탄 지부에서 자기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테러범을 잡아 조사한 러시아에서는 이 테러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하였습니다.

러-우 전쟁이 더 확전이 되지 않고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발발 후 우리 한국도 서방 측과 동맹이라 여쩔 수 없이 비우호 국가에 해당되어, 한국민이 러시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방 측의 경제제재로 공장 가동을 못하면서 약 2년을 버티던 상트 페

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은 결국 지난 1월 100유로(약 14만 원)에 러시아 회사에 넘기고 철수하였으며, 우리은행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도 5월 24일(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우호적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냉전 같은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우리 한국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악명높은 모스크바의 한 감옥으로 이송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감한 문제라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사례는 러시아 어느 곳에서 사역하던 이제 한국선교사도 미국선교사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체포 및 추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정부가 한·러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우호관계가 되도록, 또 러시아 선교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선교사역은 코로나 시기와 전시상황으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기존 사역의 회복과 현상 유지 전략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학기 한글학교를 개강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을 교육하면서 학생들과 신뢰관계를 맺어 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0일(토)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매년 해오던 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설날 한국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며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초청하는 전도활동도 하

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활절에는 뿌리미레니예(화목)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서로서로 나누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예배와 함께 매주 목요일에는 연합성경공부 및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성장과 함께 교회의 5대 기능인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의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시 상황이라 선교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 동토의 땅 러시아가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고 빨리 끝나도록
2. 한·러 외교관계가 잘 풀려 우호국가 관계가 되도록
3.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4. 예배와 말씀공부를 통한 영적성장으로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5.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도록
6. 한글학교를 통한 전도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복음도 받아들이도록
7. 김영호·서향정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러시아에서 김영호·서향정 선교사 드림

13장 : 참된 믿음과 믿음의 내용(2)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1문에서 참된 믿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그저 그런 믿음 또는 참되지 않은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참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일상에서도 “참”, “진짜”, “원조”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을 볼 수 있고, 원료 함유량이 100%라고 강조하는 제품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되지 않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에 참되지 않은 믿음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21문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

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진리라고 여기고,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받아들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십자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유는 구원 사역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단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보자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의 이름으로 슬쩍 바꿔치기를 합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강조하면서 그 자리에 교주의 이름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전제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면,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

하신 내용,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믿는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마음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지식이 되게 합니다. 마음의 역할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느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이성의 역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끼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참된 믿음을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라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는 사도신경에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쳐 왔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에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위일체 신앙에 기초하여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사역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작성된 사도신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

는 이유는 참된 복음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 교회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참된 복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복과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정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믿으며 따라야 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 외에 사도신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가 필요한 이유는 신조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성경 외에 신조가 무

슨 필요가 있냐고,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교파적 배경이나 학문적 여정에 따라 그리고 그 해석자가 현재 속해 있는 신앙공동체에 따라 성경 본문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 곧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그 복음의 내용은 비밀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 등장했던 이단들 가운데는 복음의 내용이 소수에 게만 - 14만 4천 명에게만 허락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던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2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특징은 역사성과 보편성입니다. 역사성과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수련회

장로수련회가 8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부터 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들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식사 제공



- 1교구 양춘경 은퇴장로·이인숙 은퇴권사 가정 오병호 안수집사·양세정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7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7.3	도르가, 루디아, 뵤뵤
7.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7.10	마리아
7.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7.17	방학
7.21	방학		7.24	방학
7.28	방학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7월15일	월	잠 10-13	수22	행2	렘11	마25
7월16일	화	잠 14-16	수23	행3	렘12	마26
7월17일	수	잠 17-19	수24	행4	렘13	마27
7월18일	목	잠 20:1-22:16	삿1	행5	렘14	마28
7월19일	금	잠 22:17-24:34	삿2	행6	렘15	막1
7월20일	토	잠 25-28	삿3	행7	렘16	막2
7월21일	주일	잠 29-31	삿4	행8	렘17	막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7월의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 존전(Coram Deo)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2. 7월 20일(토)-21일(주)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25일(목)-27일(토) 유·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중에 준비, 진행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전쟁과 분쟁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선교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